

최재은,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초청...한국작가 6년만

24 February, 2016 | 김자영 기자

page 1 of 3

5월 여는 베네치아서 여는 건축전

비무장지대 배경 설치미술 '꿈의 정원 프로젝트'

지뢰 염려 덜고 사람·생태계 보호하자는 취지 작품

5월 28일부터 11월27일까지



설치미술작가 최재은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설치미술가 최재은(63)이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꿈의 정원 프로젝트'로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회에 참여한다.

국제갤러리는 24일 최 작가가 오는 5월 28일부터 개막해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여는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인 '아르세날레'에 초청받았다고 밝혔다. 건축전 본전시회에 한국작가가 초청받은 것은 2010년 조민석 건축가 이후 6년 만이다. 최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일본관 작가로 선정되기도 해 건축전과 미술전에 모두 참여한 첫 한국작가이기도 하다.

이번 건축전 본전시에 낼 최 작가의 '꿈의 정원 프로젝트'는 매설된 지뢰에 대한 염려를 덜고 사람과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지상 3~6m 높이에 총 15km 길이의 공중정원 13개를 만들

고 그곳에 '바람의 탑'을 두 군데 세운다.

최 작가는 '꿈의 정원 프로젝트'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뜻을 같이하는 현존 인물 중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사와 함께 인터뷰 및 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짝수해엔 건축전을 열고 홀수해엔 미술전을 연다. 지난해 미술전 본전시에선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고 2014년 건축전에선 한국관이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조망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건축전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로 건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의 삶과 생활의 결과를 살펴보고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테마로 개최한다. 이를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최 작가는 건축전 본전시에서 '꿈의 정원 프로젝트'로 참가한다. 이 건축 프로젝트는 매설된 지뢰에 대한 염려를 덜고 사람과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상 3~6m 높이에 총 15km 길이의 공중정원 13개를 만들고 그곳에 '바람의 탑'을 두 군데 세운다.

최 작가는 '꿈의 정원 프로젝트'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뜻을 같이하는 현존 인물 중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사와 함께 인터뷰 및 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짝수해엔 건축전을 열고 홀수해엔 미술전을 연다. 지난해 미술전 본전시에선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고 2014년 건축전에선 한국관이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조망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건축전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로 건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의 삶과 생활의 결과를 살펴보고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테마로 개최한다.



설치미술작가 최재은 작 '꿈의 정원' (사진제공 국제갤러리)